

소공동체와 영적 성장을 위한



2026 **4**

제519호



진주교 서울대교구 시목국

가톨릭성가 136번 예수 부활하셨도다

기쁜 마음으로



1. 예수 부활 하셨도다
2. 인류 구원 하셨도다 알 - - - - - 렬 - 루 - 야
3. 사도들이 기뻐하네
4. 영원 생명 주신 예수



만 백 성 아 환 호 하 라
십 자가 의 희 생 으 로 알 - - - - - 렬 - 루 - 야
만 왕 의 왕 되 신 예수
주 님 항 상 따 르 리 라



천 사 들 도 즐 거 워
죽 음 이 긴 주 예수 알 - - - - - 렬 - 루 - 야
주 의 이 름 영 원 히
새 희 망 을 주 셧 네



기-빠-찬-미 노 래 하 네
천-국-문-을 여 시 었 네 알 - - - - - 렬 - 루 - 야
온-세-상-에 전 하 리 라
우-리-함-께 부 활 하 리

- 4 ● 시노드 기도 /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 6 ● 성령 안에서 대화
- 10 ● 구역반장 월례연수
- 16 ● 말씀나눔 (송제원 안드레아 신부)
 - 주님 부활 대축일
 -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 부활 제3주일
 - 부활 제4주일 / 성소 주일
- 34 ● 가로세로 낱말 퀴즈
- 36 ●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 느루, 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 38 ● 성경 73 / 성경 통독 길잡이
 - 필레몬서
- 42 ● 매일 하느님과 함께
- 43 ● 문화산책



발행인 정순택 편집인 김연범 편집 박진원 인 쇄 가톨릭출판사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목국 www.samok.or.kr
 문의 02) 727-2085 / samok@seoul.catholic.kr

시노드 기도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 앞에 있나이다”

(Adsumus Sancte Spiritus)

주 성령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있나이다.

주님만이 저희를 이끄시니 저희와 함께하시고
저희 마음에 머무소서.
저희가 나아갈 길을 보여 주시고
해야 할 일을 가르치소서.

나약한 죄인인 저희가 정의를 외면하여
혼란을 일으키지 않게 하시고
무지의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또한 아무도 차별하지 않게 하소서.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가 언제나 진리를 따르며
의로움을 찾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히 친교를 이루시며
언제 어디서나 저희를 도우시는 성령께
이 모든 것을 간청하나이다.
아멘.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기도문

젊은이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 자신을 당신께 맡겨 드리오니,
온 세상 젊은이들이 교회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친교와 일치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님,
“용기를 내어라.” 하신 당신의 말씀 안에서
온 세상 모든 이가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과 용서의 십자가가 세상에 대한 승리임을 깨닫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손길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으니,
한국 순교 성인들의 믿음이 저희 가슴에도 타올라
평화와 사랑과 진리의 복음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세계청년대회의 순례 여정을 통해
저희 모두가 서로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안에서 당신의 뜻을 찾으며,
모든 하느님 백성이 함께 걷는 시노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 자비와 평화의 모후이시여,
- ◎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주보성인들이여,
- ◎ 모든 젊은이들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령 안에서 대화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2. 개인적 준비



성부께 자신을 맡겨 드리고, 주님이신 예수님과 기도 안에서 대화하며, 성령께 귀 기울이면서, 각자 식별하도록 부름받은 질문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준비합니다.

오늘 주제는 「디지털 세상과 하느님, ‘지금’의 나는 어디 있나요?」입니다. 참가자 중 한 명 또는 돌아가면서 내용을 낭독합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에게서 희망과 기쁨을 빼앗아 가게 놓아두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4항, 프란치스코 교황)

오늘날 디지털 환경은 정보와 지식 및 나와 타인 그리고 세상과의 소통에 깊은 영향을 주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거짓 정보, 음란물 등 고독, 조작, 착취, 폭력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상 세계에 대한 몰입은 많은 사람들을 고독의 세계, 스스로 만들어 낸 세계로 이끌어 구체적인 현실과의 접촉을 막아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재능을 세상에 내어 놓지 못하게 합니다. 디지털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과연 지금의 나는 어디 있나요?

장원혁 세례자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3장 참고(QR)

- 오늘 주제와 관련하여 나의 신앙 체험 안에서 어떤 울림이 있는지 3분간 묵상하겠습니다.

3. 말하고 듣기 - 〈나눔 1〉



각자 자신의 경험과 기도에 대해 발언하고, 다른 이들의 의견을 주의 깊게 경청합니다.

제공된 주제 중 자신의 신앙생활과 삶의 경험을 통해 마음에 와닿은 내용 나누기

- 각자 개인 성찰의 내용을 3분을 넘지 않게 나눕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할까 고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3~4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4명이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묵상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하느님께 내 마음속의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4. 침묵과 기도 1

다른 참가자들의 나눔 속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3분간 성찰하겠습니다.

5. 다른 이들과 하느님께 공간을 내어주기 - 〈나눔 II〉



다른 이들이 말한 것에서 각자 가장 깊이 공감한 것 또는 저항감을 일으킨 것을 나누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맡깁니다. “우리가 들을 때 가슴 안에서 나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참가자들의 나눔을 통해 성령께서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말씀 나누기

- 나눔 대화에서 들은 내용 중에서 가장 깊은 울림이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하느님께서 어떻게 현존하시며 활동하셨다고 느꼈는지,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다고 느낀 것에 대하여 2분 이내로 나눕니다.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6. 침묵과 기도 II

오늘 나눈 모든 것들 속에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목소리를 침묵 중에 경청

-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를 지금 어느 여정으로 이끄시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3분간 갖겠습니다.

7. 함께 만들어 나가기 - 〈나눔 III〉



성령 안에서 대화의 열매를 식별하고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앞의 대화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대화합니다.

즉 통찰과 수렴된 것을 인식하고, 이견과 방해 요소, 새로운 질문을 확인하며 예언자적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합니다. 이 작업 결과가 자신을 대표한다고 모두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떤 단계로 함께 가도록 부르고 계신가?”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모두가 함께 나아가고 성장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시노드 교회가 되기 위한 제안

- 묵상하고 나눔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공동체(본당)를 위해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겠습니까?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에 대한 소감과 제안을 각자 2분 이내로 나누겠습니다.

3명이 발표하면 2분간 묵상합니다. 이어서 3명씩 발표할 때마다 2분간 묵상합니다.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2분 묵상 - 3~4명 발표)

- (3~4명 정도 나눔을 한 후) 2분간 침묵하며 성령께서 모임 안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묵상하겠습니다.

8. 마침 기도

- 오늘 ‘성령 안에서 대화’ 모임을 통해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를 바치겠습니다.

진리 <신교> -신교에서 복음화까지-

WYD(세계 청년 대회)를 통해 추구해야 할 영적 가치 중 진리편의 세 번째는 선교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의 사명처럼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9-20)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의 삶을 봉헌했고, 지금도 WYD의 영적 가치인 진리, 사랑, 평화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선교에 대해 적지 않은 오해와 잘못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결합하여 문화적 우월성을 앞세워 현지 문화를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배척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세례와 개종이 자유로운 신앙의 결심이 아니라 종교의 강압과 압력 속에 이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성찰 속에서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를 통해 선교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정의하였습니다. 공의회는 선교를 단순한 교세 확장이 아니라,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으로 정의하였습니다(「선교 교령」 6항 참조). 그리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 방향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증거를 통한 선교입니다. 선교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안에서 사랑과 봉사, 겸손을 실천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둘째, 대화를 통한 선교입니다.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

을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존중하며 진실하게 대화할 때 선교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문화를 통한 선교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행동 양식인 문화를 존중하고 그 안에서 복음이 살아 숨쉬게 될 때,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 가운데 깊이 뿌리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고통받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돌보는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에서 소외된 이들이 회복되어 다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선교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은, 비가톨릭 국가에서 처음 열리는 WYD를 한국 사회 안에서 의미 있게 준비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관점에서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세계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대하기에 앞서, 내 주

변 이웃에게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정직하게 일하며, 다툼보다는 화해를 선택하는 삶의 태도를 지니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가톨릭 신자들은 다르다’라고 느끼게 될 때, 그것이 선교의 시작이자 세계 청년 대회를 준비하는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됩니다.

둘째, 관계 중심의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와 어려움에 귀 기울이며 꾸준히 관계를 이어 갈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가톨릭 신앙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고 성장해 왔는지를 나눌 때,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게 됩니다.

셋째, 도움과 봉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한 도움과 봉사는 복음의 또 다른 언어입니다. 조언보다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건넬 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여 주신 사랑을 오늘의 삶 속에서 실천하게 됩니다. 이웃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서 밖에서 살아 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넷째,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웃을 위해 꾸준히 기도하는 것은 선교의 주체가 하느님이심을 믿고 맡기는 행위이며, 결과가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에서, 먼저 나 자신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WYD를 준비하면서 세계 청년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맞이하는 일을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나 홈스테이는 복음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전통 안에서 ‘환대’는 복음화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오 복음 25장 35절에서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듯이 맞아들였다.”는 말씀을 통해, 환대가 곧 신앙의 실천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세계의 청년들과는 언어의 장벽이 있고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왔지만, 가톨릭 신앙이라는 공통점 안에서 아침·저녁 기도를 함께 바치고, 식탁의 은총을 나눌 때

마음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집니다. 또한 우리 가정의 신앙이 아직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그 부족함마저도 솔직하게 나눌 때 하느님의 은총이 채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WYD는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은총의 시간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쳐 준 선교는 말이나 제도에 앞서 삶의 증거와 관계, 봉사와 기도에서 시작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홈스테이는 누군가를 맞이하는 일이기 전에,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복음화의 여정입니다. 세계의 청년들을 가정으로 맞이하는 이 작은 선택이, 한국 교회와 우리 각자의 신앙 안에 깊은 은총의 씨앗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희망 안에서, 많은 가정이 기쁨으로 선교와 복음화의 시작인 홈스테이에 참여하기를 초대합니다.

이세호 시몬 신부(사목국 교육지원팀)

말씀나눔 방법

1. 시작 기도

- 시작 기도로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기를 청하며 주님을 우리 가운데로 초대합니다.

2. 말씀 듣기

-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 성경 말씀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합니다.
- 침묵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묵상합니다.
- 다시 한 번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습니다.

3. 말씀 찾기

- 봉독한 말씀을 떠올리며 작성해보고, 잘 기억나지 않으면 성경 본문을 보면서 확인해봅니다.

4. 복음 이해하기

- 복음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알아봅니다.

5.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질문을 읽고 여기에 대한 자신의 묵상을 적어보고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묵상을 안내하는 질문 외에도 마음 안에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봅니다.
- 나눔을 할 때에는 경청하고, 나눔의 내용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않습니다.

6. 말씀의 실천

- 지난 주(달) 실천하기로 정한 것들을 실행했는지 함께 확인해봅니다.
- 자신과 소공동체가 한 주(달) 동안 실천할 일을 함께 정해봅니다 : 실천 사항은 누가, 무엇을, 언제 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 본당 소식 및 구역·반 소식을 전달하고 건의사항을 논의합니다.
-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를 결정합니다.

7. 마침 성가와 기도

- 이 시간 함께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마침 성가로 ‘예수 부활하셨도다’(2페이지)를 부르고 기도를 바칩니다.



주님 부활 대축일

요한 20,1-9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요한 복음서 20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요한 복음 20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①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
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1절)
- ② ()는 밖으로 나와 ()으로 갔다.(3절)
- ③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8절)

복음 이해하기

주간 첫날

이스라엘은 ‘안식일’이라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한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렛날에 쉬셨다는 창세기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느님 안에서 쉬면서 노동으로 소진된 하느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거룩하게 보내는 날입니다. 유대교적인 측면에서 안식일은 한 주를 허락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며 그 주간을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잘 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러한 안식일의 전통을 존중하는 가운데 주일을 보냅니다. 주일은 부활의 은총을 마련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하느님 보시기 좋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날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보면 사람들은 종종 토요일과 일요일을 모두 주말이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봤을 때 주일은 주간 첫날, 즉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이라고 보는 것은 세속의 시선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쉼 안에서 하느님의 생명력을 회복하는 안식일과 부활의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한 주를 거룩하게 준비하는 주일의 의미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① 안식일과 주일의 참된 의미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나요?



② 때때로 하느님과 나의 뜻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하느님의 뜻과 나의 생각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
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주님의 부활로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음을 밝혀주신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마침 성가(‘예수 부활하셨도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 제2주일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

요한 20,19-31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요한 복음서 20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요한 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① “()가 너희와 함께!”(19절)

② “()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22-23절)

③ “저의 (), 저의 ()!”(28절)

복음 이해하기

사죄권과 자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모든 죄에 대한 하느님의 용서하심을 전하게 됩니다. 가톨릭과 정교회는 사죄권이 사도단과 그 후계자들인 사목직무를 받은 사제들에게 부여된다고 보지만, 개신교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와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래 하느님 이외에 누구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수난과 죽음을 겪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성부로부터 영광된 부활이라는 은총(자비)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자비를 제자들에게 베풀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떠나고 의심했던 제자들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자비를 베풀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 즉 은총을 통해 자비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용서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비를 체험해 본 사람만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고 상대방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①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든 시련 안에서 하느님의 도우심과 그 분이 주신 평화를 체험해보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 ② 나의 실수에도 상대방에게 용서를 받았던 체험이나 혹은 상대방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
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시련과 고통을 이겨내고 참된 평화와 사랑을 주시는 예수
님께 감사드리며 마침 성가(‘예수 부활하셨도다’, 2페이지)를 부르
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부활 제3주일

루카 24,13-35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루카 복음서 24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루카 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①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21절)
- ② “그리스도는 그러한 ()을 겪고서 자기의 ()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26절)
- ③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을 들고 ()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30-31절)

복음 이해하기 >

엠마오 이야기

엠마오의 두 제자 이야기는 루카 복음만의 특수한 사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지하고 깨달아가는 과정을 네 단계(①두 제자와의 '만남', ②두 제자와의 '대화', ③만찬, ④예루살렘으로 돌아감)에 걸친 한편의 이야기로 잘 보여줍니다. 루카는 예루살렘을 예수님 여행의 최종 목적지이자 수난 장소, 그리고 복음이 전파될 시작점으로 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시는 가운데(말씀의 전례) 예수님의 현존을 느꼈고, 빵을 떼실 때(성찬의 전례) 그분의 현존을 알아보았습니다. 루카는 이 이야기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인지) 성만찬 때 빵과 포도주의 형상을 통해 현존을 느낀다(깨달음)는 것을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의 현존을 깨달은 우리는 이전에 고통을 겪었던 장소로 돌아가지만, 이제 마냥 슬프고 괴롭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그분의 현존을 토대로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지니고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상으로 되돌아갑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① 시련과 고통 중에 있을 때 함께 하고 계신 예수님의 현존을 알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 성경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

.....

.....

.....



- ②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사랑을 가시적으로 드러내준 7가지 성사(세례, 견진, 성체, 혼인, 성품, 고해, 병자) 중 예수님의 사랑과 현존을 느끼게 해준 체험이 있으셨나요?

.....

.....

.....

.....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삶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사 안에서 그분의 현존을 깊이 느끼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마침 성가(‘예수 부활하셨도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부활 제4주일 / 성소 주일

요한 10,1-10

시작 기도

성호경, 시작 성가, 출석 확인과 인사 나눔

주님 초대하기

“기도로 주님을 우리 가운데 초대해 주십시오.”

말씀 듣기

“요한 복음서 10장을 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요한 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말씀 찾기

“오늘 성경 말씀에서 다음 물음의 답을 찾아봅시다.”

- ① “()에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이며 ()다.”(1절)
- ②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을 받고, 또 드나들며()을 찾아 얻을 것이다.”(9절)
- ③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이 ()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10절)

복음 이해하기 >

문과 목자

예수님께서서는 착한 목자 비유를 통해 두 가지 중요한 표상을 끌어내십니다.

① 첫번째 표상은 ‘문’ 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당신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개념은 성자께서 진리 자체이신 하느님의 말씀(로고스)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두번째 표상은 ‘목자’ 입니다.

이 표상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느님께 적용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 부여하십니다.

이 두 표상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느님으로 자처했기에 신성을 모독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부활을 체험한 이들은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참된 하느님이시며 우리를 대표하는 참된 사람이심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그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참된 자녀(아들, 딸)가 되도록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을 들여다보고 나누기 >>

“오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아래의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묵상을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중 한가지를 소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어 봅시다.”

- ①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과 친해지고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기울이려면 마음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②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는 유사종교(통일교, 신천지 등)를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들이 그릇된 종교관을 전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말씀의 실천



“우리가 해야 할 실천 사항을 협의하고 다짐해봅시다.”

① 한 주(달) 동안 공동체가 함께 실천할 일을 정해봅시다.

② 본당 및 소공동체 소식 전달, 건의 사항, 다음 모임 일시
와 장소 선정

마침 성가와 기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애타게 부르시는 주
님께 기쁜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다짐하며 마침
성가(‘예수 부활하셨도다’, 2페이지)를 부르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시노드 기도’(4페이지) 혹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공식 기도문’(5페이지)을 바칩시다.”(자유 기도로 대신
할 수 있습니다.)

가로세로 낱말 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 가로 열 쇠 >

-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대축일. ‘부활절’의 정식 명칭.
- 향신료의 일종으로 오향장육, 동파육, 홍소육 등 중국 요리에 많이 사용되며 그 밖에 인도나 동남아 요리에도 쓰인다. 여덟 꼴의 별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명칭이다.
- 본래는 박해 시기에 용감하게 신앙을 증거하였으나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이들을 부르던 명칭. 이후 의미가 확장되어 순교자가 아닌 성인들을 부르거나 더 넓은 의미로 순교자까지 포함하여 모든 성인을 두루 일컫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성주간 목요일에 드리는 두 대의 미사 중 하나로, 주로 오전 중에 봉헌되며 각종 전례와 성사에 사용되는 성유(聖油)를 축성하기 위한 미사.

10. 성바오로 수도회에서 운영했던 도서출판 다솜에서 발행된 한국의 천주교 만화 잡지. 현재는 폐간되었다.
12. '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라는 뜻의 사자성어

< 세 로 열 시 >

1. 성주간 금요일의 정식 명칭.
2. 부활 시기의 첫 팔일을 지칭하는 말. 이 기간은 부활의 기쁨을 나누며 성대한 축제일로 지낸다.
3. 코 안쪽의 비강(鼻腔)에 염증이 일어나 농증 분비물이 고이는 질병. 부비동염(副鼻洞炎)이라고도 한다.
4. 한반도의 고대 왕국 백제(百濟)의 제31대이자 마지막 왕.
8.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의 지명이자 한국 천주교 성지가 있는 곳. 박해 시기에 교우촌이 있던 곳이며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과 그 밖의 성직자들, 그리고 무명 순교자들의 묘소가 있다.
9. 한국의 전통식 온돌에서 고래(온돌 아래로 열기와 연기가 지나가는 길) 위에 덮는 넓적한 돌.
11. 일반적으로는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뜻하는 말이나, 교회 용어로는 그리스도교 신앙인들 사이의, 또 신앙인들과 하느님 사이의 이상적 관계를 나타내는 그리스어 단어 'koinonia(코이노니아)'의 번역어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

하상헌 윤호요셉 신부(여의도동성당 부주임)

‘가로세로 낱말 퀴즈’ 정답은 사목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브뤼기에르 주교

느루, 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하느님께서 브뤼기에르 신부에게 담아주신 조선 선교에 대한 열정은 화려한 빛을 내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섬광이 아니라 느루(한꺼번에 몰아치지 아니하면서도 오래도록) 이어지는 구들장의 온기와 같았습니다. 한번 데워진 온돌이 쉽게 차가워지지 않듯 조선 신자들을 향한 그의 마음도 식지 않는 성령의 불꽃을 통해 하느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면서도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겸손되어 청원하며 기도하던 그에게 하느님께서 새로운 부르심을 건네십니다.

1831년, 세계 각지의 선교지를 관할하는 포교성성 장관에서 교황으로 선출된 그레고리오 16세는 새로운 칙서를 통해 조선대목구를 설정했고, 브뤼기에르 주교를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합니다. 평생 머무를 것처럼 빈틈없이 성실하게 생활하면서도 지금 당장 파견될 수 있도록 무언가에 애착하지 않는 자세로 살았던 그는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깨어 있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참된 목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사목국 기획연구팀)

1831년 9월 9일 반포된 그레고리오 16세 교황 칙서

저는 선교 사업을 주관하는 로마 성교회의 공경하울 추기경 형제들의 권고로 지금 당장 조선 나라를 새로운 교구로 설정하고, 거기에 베이징 주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교구장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므로 저는 … 깊은 고려 끝에 … 이 교황 칙서로서 조선 왕국을 지금 당장 새 교구로 설정하는 바이며, 이 교구에 베이징 주교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교구장을 세울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공경하울 형제 감사 주교 바르톨로메오 브뤼기에르 주교께, 경애하울 형제여, … 하늘에서 저에게 맡긴 목자의 직분은 …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하느님 계명의 길로 인도되고, …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 있어 적당한 도움을 받도록, 천국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연구를 하여 돌보도록 밀어줍니다. 그러므로 … 그대가 조선에 들어가 조선의 신입 교우들의 일을 맡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을 때, … 그대의 청을 너그러이 들어, … 저의 이 칙서로써 지금 그대를 저와 교황청의 자의로 조선 교구장으로 선택하고 임명하고 정하여 … 모든 특권을 부여하는 바입니다.

로마, 마리아 대성전에서

1831년 본 교황 재위 제11년 9월 9일 반포함

《브뤼기에르 주교 서한집》© 정양모 윤종국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여행기》© 정양모 옮김, 가톨릭출판사, 2007.

《브뤼기에르 주교 바로 살기》© 생활성서사, 2024.

성경 73

성경 통독 길잡이

필레몬서



필레몬서는 한 장, 25절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3번째 선교 여행 가운데 에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때 바오로 사도는 여러 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 필레몬서도 그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필레몬서는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의 집에서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스를 만나 그를 회심시킨 뒤 그에게 자유를 얻어 주기 위해서 주인인 필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사회는 원로원과 로마 관리, 지방 유지, 소지주·가게 주인·장인, 자유민, 노예 등 복잡한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신분사회였습니다. 원로원과 로마의 관리는 지방 정치와 경제 및 군사를 담당하였으며 지방의 유지들은 지역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소지주와 가게 주인 및 장인은 중인 계층을 형성하였으며, 자유민은 주인이 선처를 베풀거나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는 제일 하층민으로서 전쟁 포로로 잡혀 오거나 노예 사냥꾼들에게 유괴된 사람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 팔린 사람들과 노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씨종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필레몬서에 등장하는 오네시모스는

노예였으며, 당시 노예들은 광물을 채굴하거나 건축 등 중노동에 주로 동원되었으나 그중에서는 가사와 육아를 돕는 가정 노예도 있었고 학식이 있는 노예인 경우에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주인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네시모스의 경우 필레몬의 집에 속한 노예로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먼저 필레몬과 필레몬의 집에 모여 있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4-7절에서 필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칭찬을 이어갑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빛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19절)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바오로 사도는 필레몬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필레몬은 복음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필레몬은 공동체에 사랑을 베풀었고, 그들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일으켰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처럼 필레몬이 하느님의 사람이며,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훌륭한 모범이 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칭찬합니다.

8-22절은 필레몬서의 핵심으로 바오로 사도는 필레몬에게 오네시모스와 관련한 부탁을 건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이 에페소 감옥에 투옥되어 있으며, 수감 중에 오네시모스를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가 회개하여 신자가 되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네시모스가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뒤 오네시모스를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를 자유롭게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바오로 사도는 오네시모스를 필레몬에게 바로 되돌려 보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네시모스를 일정 시간 동안 데리고 있었던 것은 그를 숨겨준 것이 되기 때문에 위법한 일이 됩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이러한 일을 선택한 뒤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를 종이나 노예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아울러 형제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여기서 노예 제도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생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에게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갈라 3,28; 1코린 7,22-23 1코린 12,13; 참조). 노예 제도에 대한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사실상 노예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에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지만 그는 복음 선포자로서 이를 선택하였고,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필레몬에게도 같은 마음을 가져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분 제도 자체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사회 제도의 한계를 그리스도인의 형제애로, 그리스도인의 최고 원리인 사랑으로 극복하도록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필레몬에게 “그대가 나를 동지로 여긴다면, 나를 맞아들 이듯이 그를 맞아들여 주십시오.”(17절)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대하듯이 따뜻하게 형제로 맞아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가 필레몬을 비롯해서 크레타 교회의 영적 지도자 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앞서 살펴본 “그렇다고 나에게 빛을 진 덕분에 지금의 그대가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19절)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필레몬이 그에게 신세 진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바오로 사도는 오네시 무스 일과 관련해서 필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오로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 복음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안에서 그대의 덕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이 생기를 얻게 해 주십시오.”(20절)라고 말하면서 필레몬의 복음적 선택이 바오로 사도 자신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23-25절에서 바오로 사도는 자신과 함께 수감되어 있는 에파프라스 그리고 자신을 돕고 있는 마르코, 아리스타르코스, 데마스, 루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함께 끝인사를 전한 뒤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며 편지를 마칩니다. 

노현기 다니엘 신부(사목국 행정지원팀)

매일 하느님과 함께



이 달에 청하고 싶은 은혜 :

날 짜	아침저녁 기도	미사 참례	성경 읽기	묵주 기도	성체 조배	희생과 선행	화살 기도	가정 기도	나의 다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계									

하느님께 감사드릴 일 :

.....가(이)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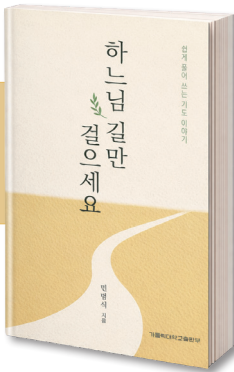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김의태 옮김 | 127*188 | 399면 | 27,000원 | 가톨릭출판사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남긴 행복의 유산

프란치스코 교황은 생전 끊임없이 우리에게 같은 메시지를 건넸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복론》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설교, 연설, 문헌, 묵상 속에서 전해 온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교황은 행복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이자 우리가 서로에게 건네야 할 선물이라고 설명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 특유의 부드럽고 따뜻한 언어로 전하는 삶을 변화시키는 15가지 방법과 8가지 행복의 신학을 통해 우리가 미처 잃어버린 줄도 몰랐던 ‘진짜 행복’을 다시 발견해 보세요.

가톨릭북플러스 www.catholicbookplus.kr | 도서 구입 문의 02) 6365-1888



하느님 길만 걸으세요

-쉽게 풀어쓰는 기도 이야기-

민범식 지음 | 145*220 | 440쪽 | 15,000원

신앙의 길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건네는 작은 등불

우리 주변엔 스스로의 영성 생활 또는 기도 생활에 대한 부족함에 반성을 하는 신자들이 있다. 이 책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기도생활이나 영성생활에 대해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끼는 신자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영성신학과 심리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란 무엇인지 그리고 영성생활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느님과 함께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방향을 쉽게 안내해준다.

가톨릭대학교출판부 www.press.catholic.ac.kr 전국 서점 / 구입 문의 02-740-9718

